

공정성장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좌담회 안내

공정성장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 일 시 : 2015년 6월 17일(수)
- 장 소 :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대학 C동 104호
- 좌 담 : 안철수 국회의원·박선희 교수(조선대학교 신문방송학과)
- 주 최 : 국회의원 안철수·정책네트워크 내일



목 차

1. 기조강연
2. 강연 Q&A
3. 근황
4. 한국경제 위기 진단 및 원인
5. 안철수의 공정성장론에 대하여
6. 지역균형발전 - 광주광역시 중심으로



1. 기조강연

- 안철수 국회의원



“왜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들이 실패확률이 높은가. 첫 번째는 경영자나 창업자의 실력부족, 두 번째는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창업에 따르는 위험들을 가져가고 도와줘야 하는데 그 기능이 취약한 점, 세 번째는 시장구조가 아직도 불공정하기 때문입니다”

존 도어라는 분을 아십니까? 존 도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벤처 투자가입니다. 그분의 강의를 미국에서 들었을 때, 3,000명 가량 모였습니다. 그런데 산타클라라 컨벤션센터에 모여있는 청중을 보다가, 이분이 제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재미없을 것 같으면서 무대 뒤를 보

고 누구를 불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그 당시 아홉 시 뉴스 앵커인데요. 그 분이 나와서 즉석에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청중을 보지 않고 소파에 앉아 두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강의 중에서 가장 많은 것들을 일깨워 준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대담이 강의를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대담형식으로 강연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그중에서 조금 복잡한 부분들은 대담으로 풀기는 힘들 것 같아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인 벤처기업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해 짧게 강연형식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고 나서 대담을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부에서 정책이 나왔는데요.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공계 입학률 많이 하게 하려

면 정부에서 뭘 해야 할까요? 이공계 졸업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정책을 해야겠죠. 예를 들면 이공계 취업을 많이 시키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정부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엉뚱하게 이공계 장학금이 나왔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일자리는 상관없고 무조건 많이 들어오기만 하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공계 장학금을 국가에서 도입하는 것을 보고 문제가 많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단기기간의 효과만 보는 그런 정책은 건강한 게 아니다. 저는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게 됐습니다.

요즘 창업에 관련된 정책들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려면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일까? 첫째는 중소기업으로 시작한 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해서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재도전할 기회를 주는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정책이 가장 기본이겠죠.

그런데 정부의 정책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의 정책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창업할 때 돈을 제공하는 것만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벤처기업 성공확률이 통계로 나온 게 있는데요. 3년 후에 벤처기업이 생존할 확률이 40%라고 나왔습니다. 10개 기업이 3년 지나면 4개만 살아남고 6개는 망해요. OECD 국가 중에서 꼴찌 수준입니다. 생존확률이 제일 낮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성공확률을 높이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데요. 그런 척박한 토양은 그대로 놔두고, 창업하는데 돈을 제공하는 것만 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만약 이대로 가면 3년 후에 굉장히 힘든 청년 기업가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하려고 하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가? 그 말씀들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떻게 하면 기업의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업이 왜 실패하는가?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실패확률이 높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 탓할 필요 없이 창업자의 경영능력이 부족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 여러 요소에서 기업을 도와줘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창업을 할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 정신 가진 사람들은 창업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왜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창업을 많이 하느냐.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 창업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대로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창업을 하지 않게 되면 국가 전체의 경제 활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창업에 따르는 위험들을 사회 각 분야에서 분담하는 겁니다. 매우 큰 위험을 정부에서 조금 가져가고, 또 다른 분야에서 조금 가져가면서 정상인들도 창업할 마음이 들게 위험을 줄여주는 거죠. 선진국들은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창업을 멀쩡한 사람들도 결심하게 되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어떤가 하면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창업에 따르는 위험을 전부 개인에게 지웁니다. 사회 각 부분에서 위험을 분산해야 하는데요. 그러지 못하다 보니 위험이 큰 거죠. 그게 우리나라가 조금 취약한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시장구조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공정하지 않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간에 불공정거래 관행이 있고, 정부에 납품할 때에도 불공정거래 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만 존재할 때도 시장이 정상적인 구조는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왜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들이 실패확률이 높은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경영자나 창업자의 실력부족, 두 번째로는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창업에 따르는 위험들을 가져가고 도와줘야 하는데, 그 기능이

취약한 점, 세 번째로는 시장구조가 아직도 불공정하다 이런 것들이 주요 요소인데요.

그러면 원인이 나왔으니 그 세 가지만 고치면 성공확률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몰라서 경영을 잘 못 합니다. 경영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바둑을 둘 때 바둑책을 보면서 정석을 외우면 어느 정도 빨리 실력이 늘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책에 나온 걸 외우기만 해서는 잘되지 않거든요. 직접 실전에서 바둑을 많이 뒤편해야 합니다.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프로그래밍을 많이 해봤지만, 이론적으로 공부해서 느는 실력은 절반 정도고요. 나머지 절반 정도는 실전에서 여러 가지 연습을 통해서 채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키텍트가 되는 거죠. 프로그래머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 아키텍트는 이론과 실전을 겸비해야 합니다. 경영도 마찬가지예요. 이론적인 것도 공부해야 하고 누가 조언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은 국가에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교육이 ‘앙트러프로너십’ 기업가 정신 교육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카이스트 교수, 서울대 교수할 때 맡았던 과목이 기업가 정신인데요. 제가 볼 때 많은 기업가정신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원래 기업가정신 교육은 창업 교육이 아닙니다. 많이들 착각하시는데요. 제대로 된 기업가정신 교육이 무엇이나 하면, 스스로 한 개인이 자기의 인생을 개척해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결심을 하는 그 과정에 대한 교육이 기업가 교육입니다. 굉장히 다르지만 복잡하지는 않아요. 방법도 있고 제대로 된 기업가 정신 교육 과정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기업가 정신 교육이 그렇게 가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협소한 창업에만 국한되어 있거나 비즈니스 플랜을 어떻게 쓰느냐 또는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만 가고 있는데요. 그런 것 말고 제대로 된 기업가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멘토가 있어야죠. 창업하고 난 다음에 회사 사장이라고 해도

누군가 좋은 선배가 조언을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 창업 관심 있는 분이면 멘토를 찾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사회에서 기업가가 가지는 위험요소들을 많이 줄여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크게 보면 다섯 가지 정도가 있어요. 무엇이나 하면,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에서 역할을 잘 해줘야 하고 금융계에서 대출 관행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하고 벤처캐피탈에서 제대로 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웃소싱 산업이 제대로 잘 발달해 있으면 기업을 경영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러한 5가지 정도를 제대로 하고 있고, R&D 정책이 제대로 수립돼 있으면 기업에서 위험요소를 많이 낮출 수 있어요.

예를 들면 R&D 정책 같은 경우에도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대담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시장 감시 처벌 이런 것들도 정부에서 지금까지 제대로 공정한 지 감시 안 한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대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의 성공확률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투자를 잘 안 합니다. 왜 투자를 안 하느냐. 그건 투자를 하고 나서 자금 회수를 잘 못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투자자들 자금 회수가 잘 안 되는가. 외국을 한번 보시면 80%는 자신이 투자한 회사가 대기업에 매각되면서 그때 자신의 투자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나머지 20%는 주식시장에 상장하게 되면서 회수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떠냐면, 일종의 M&A 시장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들을 인수하는 게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식시장 상장도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투자를 안 하게 되죠.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서 M&A 시장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미 잘하고 있는 벤처기업이 있어요. 실리콘밸리 같으면 많은

돈을 주고라도 그 기업을 삽니다. 인스타그램이 얼마에 팔렸어요? 20명 직원의 인스타그램이 만든 지 2년 정도 만에 1조 원에 팔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인력 빼가기를 합니다. 대기업에서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접촉해서 너 월급 2배 줄게 그러면서 인력을 빼갑니다. 그냥 인력 빼가기만 하면 비용이 훨씬 적게 듭니다. 사실 납품단가 깎는 것보다 인력 빼가는 것이 최대의 불공정 거래거든요. 그것 때문에 벤처생태계가 허물어지는 거죠. 인력을 안 빼가면 훨씬 더 낮은 비용으로 일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독점계약을 맺기 때문에 다른 일들은 못 하게 만들어놔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M&A 시장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투자자들이 회사에 투자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올라가 보면 결국은 우리나라 대기업·중소기업 간에 경쟁하는 시장이 공정하게 되면 많이 풀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본적으로 공정한 시장이 되어야 투자자들이 벤처기업들에 투자를 열심히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사람들이 창업을 안 할까. 그 이유는 한번 실패하면 금융사범이 돼서 평생 빚쟁이로 삽니다.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건데요. 그러면 왜 사업에서 망하면 빚쟁이가 되겠습니까? 그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면 대표이사 연대보증에 있어요. 회사의 빚이 100% 개인 빚이 되는 경우인데요. 연대보증이니까 회사가 돈을 빌릴 때 회사사장이거나 창업자가 연대보증을 서요. 그래서 회사가 은행에서 빌린 돈을 못 갚을 때는 개인이 갚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망하게 되면 회사의 빚이 100% 개인 빚이 되면서 갚을 수 없죠. 그러면 이제 금융사범이 되고 평생 재기를 못 하게 되는 겁니다. 외국에는 어떨까요? 외국에는 저런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왜 외국에는 안 일어나는지 아세요? 원래 창업하는 기업은 빚을 얻어서 창업하면 안 됩니다. 꼭 투자를 받아서 해야 해요. 그런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투자를 받아서 기업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투자를 받아서 투자한 액수만큼만 유한책임을 집니다. 회사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경영합니다. 그러다가 힘들어져요. CEO나 창업

자가 제일 먼저 압니다. 그래서 주주들을 다 모아서 설득하는 거죠. ‘지금 이대로 가면 망합니다. 그대로 가서 망하면 한 푼도 남지 않는데, 지금 사업 포기하고 남은 자산들을 다 매각하면 일부라도 돈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다들 유한책임이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처음에 이것이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다고 알고 투자를 한 것 아닙니까? 사실 그것이 투자죠. 그러면 미안하기는 하지만 CEO나 창업자는 책임이 없어요. 그리고 빚도 없어요. 그렇게 그 다음 사업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공확률을 높여요. 옛날에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니깐, 한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면서 세 번째는 거의 성공해요. 그것이 실리콘밸리거든요. 실리콘 밸리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나 하면, 개인의 실패를 사회적인 자산으로 만드는 거예요. 한두 번 실패해서 손실 본 것을 나중에 백배 성공해서 훨씬 더 크게 갚죠. 그게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거든요. 개인의 실패경험은 사회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일단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해요. 그 이유는 대기업에서 불공정하게 인력 빼돌리기를 해서,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정말 제2의 구글을 만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투자를 못 받아서 답답하니까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런데 담보가 없어요. 그래서 대표이사 연대보증을 서요. 그게 불행의 시작인 거죠. 결국은 회사가 망할 때 개인 빚이 돼버리면서 다시는 재개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구조는 그렇습니다. 이 구조를 굉장히 잘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이사연대보증제를 없애면 되는 게 아닌가 하죠. 물론 없애면 좋아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처음 창업할 때 빚을 얻어서 하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빚을 얻어서 창업하지 마세요. 너무 답답하죠. 그런데 입장을 반대로 바꿔놓고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시면, 내가 돈을 버는데 얼마나 많이 고생했어요? 이 소중한 돈을 전혀 모르는

남한테 투자하려면 대단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혀 모르는 남의 돈을 투자받을 수 있으면, 그 사업은 성공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설득해도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 스스로는 이 아이디어가 대박이 날 아이디어라 해도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보셔야 해요. 성공할 확률이 내가 확신하는 만큼, 투자자가 확신하지 못하면 반드시 허점이 있습니다. 보통 엔지니어분들이 이런 생각을 잘 못 하세요. 돈을 빌려서 대표이사 연대보증으로 하다가 망하면 평생 재기를 못 하는 가까운 엔지니어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반드시 이것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정도만 보면, 국가적으로 어떤 것들을 바꿔야 하는지 답이 나옵니다. 즉 이공계 기피현상이 있을 때 이공계 장학금을 주는 정책이 아니라 이공계 졸업한 학생들을 위해 일자리 많이 만드는 게 국가에서 할 일인 것처럼, 창업을 활성화하려면 창업에 자금 제공하는 일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게 하고, 어떻게 하면 기업가들이 성공할 수 있게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실패하더라도 다시 재도전할 수 있게 실리콘밸리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것이 핵심이죠.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까지 한 번에 묶어서 대담에서 자세하고 넓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강연 Q&A

“저는 사업에서 제일 힘든 게 제품개발도 아니었고 물건 파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판매한 대금 회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물건 파는 일이 아니고 돈 받는 일이더라고요. 이건 교과서에도 없습니다. 실제로 사업 안 해보면 절대로 모릅니다.”

사회자 : 오늘 이 자리에 지스트 입주기업을 비롯해 많은 중소기업체 관계자들과 창업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두세 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질문자 1 : 조금 전에 M&A 시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M&A 시장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철수 국회의원(이하 안철수) : 인수합병시장입니다. Mergers&Acquisitions의 약자이고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사거나 1:1로 합병하거나 이런 게 있어야 투자자들이 그 기회를 통해서 자기가 투자한 돈이 현금화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대기업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인력을 빼가면 훨씬 돈이 적게 들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불공정한 시장환경



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질문자 2 : 안철수 의원님. 광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까 문승현 총장님께서 소개하실 때 융합인재와 같은 것을 다 포함하시고 계시다는 걸 말씀하셨는데요. 강의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제가 창업진흥원에 들어와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인으로 변신하셔서 성공하실 때까지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정말 핵심을 찌르신 것 같습니다. 정부정책이 대부분 창업에 대한 비용 원조 정도이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많이 절망하고 겁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을 진단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셔서,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저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인지. 두 가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철수 : 기업가로 제일 힘들었을 때가 초창기였던 것 같습니다. 초창기 4년 정도를 굉장히 힘들게 보냈는데요. 매달 월급 줄 돈이 없어서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V3가 많이 알려졌기는 하지만 일반인들은 구매를 안 해주십니다. 기업에 판매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안철수연구소가 B2B 기업입니다.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B2B 기업의 대표적 기업 중 하나인데요.

B2B 기업의 특징은 세일즈 사이클이 꽤 깁니다. 그러니까 석 달 후에 매출이 예측돼요. 기업에서 제품을 납품하려면 과정이 있고 절차가 있고 그런 거니까요. 매달 초에 보면 아무리 고생을 해도 말일에 월급 줄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매달 비상이었습니다. 매달 비상 걸려서 최대한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어음밖에 없거든요. 그 당시는 대기업에 납품하면 6개월 정도 기다리라고 한 다음에 6개월짜리 어음을 끊어줍니다. 실제로는 1년 뒤에 돈을 받는 거거든요. 어음을 가지고 은행에 가면 할인을 해줍니다. 몇 달 후에 돈을 받는건데 미리 이자를 다 차감하는 거죠. 그런데 억울해요. 몇 달 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어음인데, 이자율이 굉장히 높아서 몇 달 전에 어음 할인을 하면 돈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고생해서 했는데, 그래도 어떡해요. 어음 할인하면서 그렇게 계속 살았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이 둘 다 있어야 하는구나 하고 절실하게 느낍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장기계획만 가지고는 못 살아남습니다. 내가 이 벤처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장기계획을 세우는데, 매달 돈을 못 벌면 가다가 굶어 죽거든요. 망해버리죠. 대신에 반대로 단기계획만 가지고 있으면요. 매일 돈 버는데만 급급해서 가고, 어느 순간에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장기계획, 단기계획이 중요한데요. 고생하다 보면 장기계획을 잃어버리기가 참 쉽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게 저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말씀드리면, 저는 사업에서 제일 힘든 것이 제품개발도 아니었고 물건 파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판매한 대금 회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물건 파는 일이 아니고 돈 받는 일이라고요. 그것 이해가 안 되죠?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내가 물건을 팔았으니까 돈을 받는 게 당연한데, 웬만큼 노력해서 돈 받기가 힘듭니다. 세상이 돈을 안 줘요. 이건 교과서에도 없습니다. 실제로 사업 안 해보면 절대로 모릅니다.

생각해보시면 친척분 중에 그런 분 없으세요? 물건 많이 팔고 받을 외상값이 많은데, 현금이 없어서 그냥 망하는 경우. 흑자도산이 그런

거거든요. 세상이 돈 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사업경험이 있는 선배들(멘토)로부터 미리 들으면 대비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물건을 많이 팔았다고 방심하지 않고, 못 받을 때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런 준비들을 하면서 흑자도산 같은 불행한 일을 겪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두서없지만, 기업을 경영하면서 어려웠던 점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체적인 것은 국가 정책인데요. 지금 모든 것이 불공정한 시장에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기업이 성공하기 힘든 것이 이런 불공정거래 관행 때문이고, 투자자가 벤처기업에 투자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불공정거래 관행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공통요소는 우리나라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어서, 그 문제를 종합적으로 모은 것이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공정성장론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해서도 설명하겠습니다.

3. 근황

“얼마나 우리가 제대로 못 했으면, 얼마나 국가적인 방역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제가 지금 취할 입장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사태에 대응하고, 너무 지나친 공포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사실을 이야기하고,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 중에, 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 계속 주장하여 관철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선희 교수(이하 박선희) :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좌담 진행을 맡은 조선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선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예정된 시간이 70분입니다. 기말고사기간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빛내고 있으니까 안 의원님께서도 열심히 강연해주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존 도어의 좌담회에서 감동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그 역할이 대담자에게 있는 것 같은데 기말고사를 앞둔 학생처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선 안철수 의원님의 근황을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메르스 확산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다행히 아직 광주는 청정지역입니다. 의원님 근황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 메르스 사태에 고민했던 부분은 제가 의사 출신이고 정치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보통 감염병이 많이 확산될 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이러스 자체의 감염력이 높은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적인 방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그 두 가지가 겹치면 매우 빠르게 감염병이 확산됩니다.

이 경우는 바이러스 자체 감염력은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제대로 못 했으면, 얼마나 국가적인 방역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제가 지금 취할 입장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사태에 대응하고, 너무 지나친 공포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사실을 이야기하고,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 중에 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 제가 계속 주장하여 관철시키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처음 메르스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때가 5월 27일입니다. 정치권에서 가장 처음 이야기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의사 출신이기도 하니까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주장했던 것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사태에 대응해야 한다. 전 국민적인 공조 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6월 3일에는 이 문제를 민관합동체계로 풀어야 하고 전문가에게 권한을 줘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연금전문가가 보고받고, 결정할 수 없는 사람이 보고받고 있는 것만큼 시간 낭비가 없잖습니까.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전투에서 사령관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비밀 공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보공개가 안 돼서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것들 주장하면서 제가 요구한 것들 대부분이 관철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4. 한국경제 위기 진단 및 원인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이 상황은 경제위기 상황으로 접어들어 가고 있고, 3% 성장을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악에는 2% 성장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엄청난 고통에 휩싸일 것이라 걱정하고 있습니다.”

박선희 : 요즘 언론에서 메르스와 대선주자 인기도에 대해 조사들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공정성장론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신성장동력, 분배, 공정경쟁, 복지 이렇게 네 번에 걸쳐, 전문가와 행정을 집행하는 분들과 좌담회와 토론회를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박원순 시장님과 남북경제협력을 논의하셨고, 오늘이 일곱 번째입니다. 지속해서 한국경제 해법 찾기 토론회와 좌담회를 해오셨는데, 처음으로 지역 문제·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공정성장론을 함께 논의해주실 겁니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안철수 : 아시다시피 국가 경제를 보면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수출과 내수입니다. 그런데 수출이 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화가 약세인데요. 이것은 우리나라 수출경쟁력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질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내수는 얼마 전 통계를 보면 한 달 가계부채가 10조가 넘었습니다. 한 달 증가 폭이 사상 최대입니다. 한 달에 10조 이상 가계부채가 증가했는데, 부채가 많으면 물건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메르스 때문에 가게들이 잘 안 됩니다. 오늘 공항을 통해 왔는데, 김포공항도 거의 비어있다시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수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게다가 한국 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계부채는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미국에서 하반기가 되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칠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금리가 높고 한국의 금리가 낮으면 돈이 금리가 높은 곳으로 갑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한국에 있는 자본들이 유출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사놓은 주식을 팔고 떠납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도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하반기에 벌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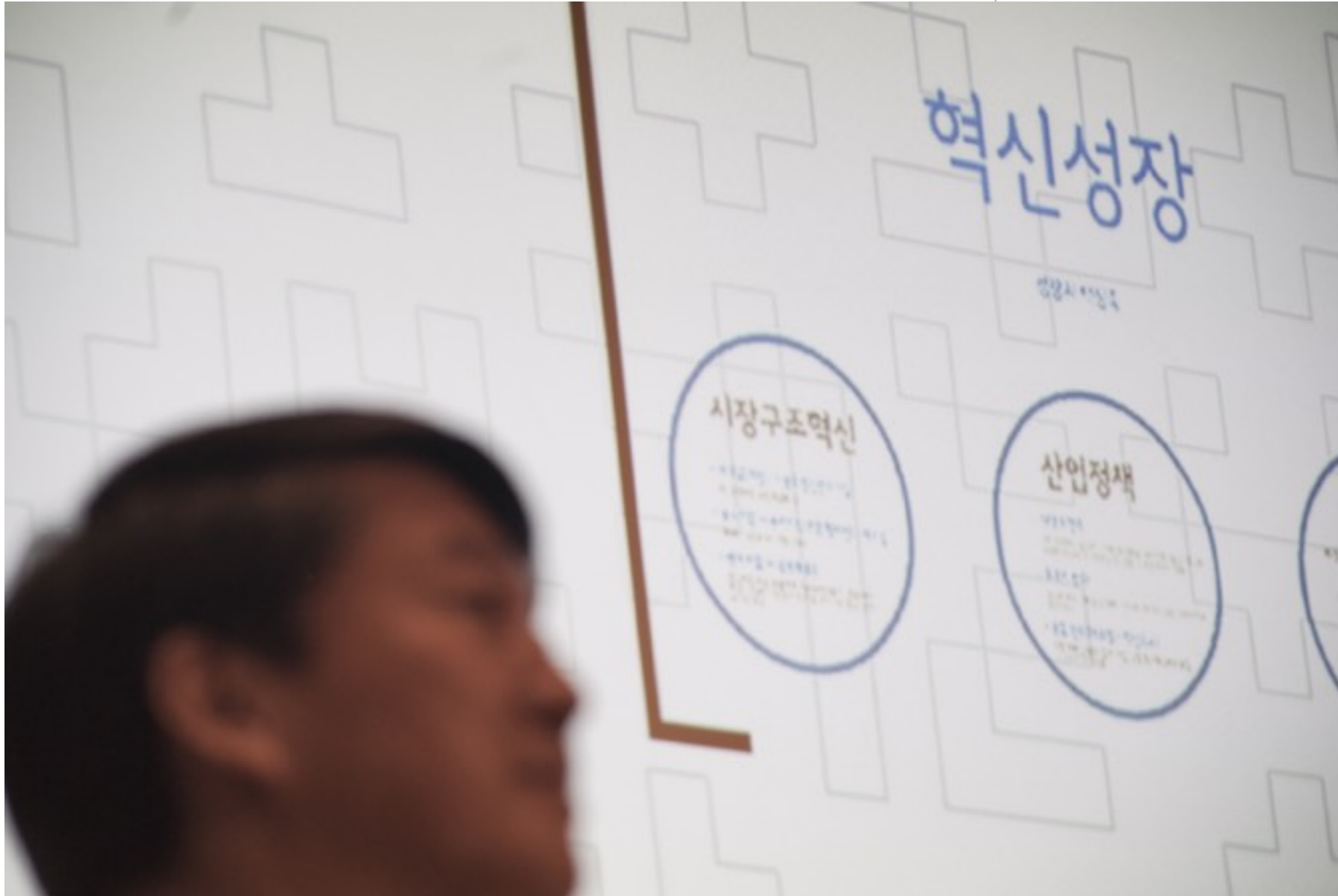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이 상황은 경제위기 상황으로 접어들어 가고 있고, 3% 성장을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최악에는 2% 성장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엄청난 고통에 휩싸일 것이라 걱정하고 있습니다.

5. 안철수의 공정성장론에 대하여

- 공정성장론 - 공정한 제도 하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성장과 분배가 (일자리로 이어져) 선순환 되는 경제시스템.
- 공정성장론의 3대 요소 ▲혁신성장 ▲공정분배 ▲생산적 복지

박선희 : 1년 되었죠. 초이노믹스가 내수 활성화를 내걸었는데, 그게 지금 거의 정책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조치를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암울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조하에서 저성장의 시기에 들어섰고, 40년 장기불황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인가. 큰 틀에서 어떻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들고나오신 것이 공정성장론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공정성장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 공정성장론에 앞서 몇 가지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공정성장·공정한 경제가 필요한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대한항공 땅콩 회항 때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보면서 만약 외국 항공사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예약한 승객들이 굉장히 많이 취소하고, 주가도 많이 폭락하고, CEO도 바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주가를 봤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대한항공 주가는 올랐습니다. 그게



유가 하락 때문에 예상되는 이익이 더 많아서 오른 것이죠. 우리나라는 대기업 또는 1등 기업이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계속 1등 하는 구조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 30년 전에 IBM에서 대형컴퓨터만 만들다가 PC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형컴퓨터 만들던 회사에서 보면 매우 영세하잖아요. 하청을 줘야겠다 싶어서 회사를 찾아봐야겠다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IC칩은 그 당시 중소기업인 인텔이라는 조그만 회사에 하청을 주고, 운영체제는 찾아보니까 어리숙하게 생긴 빌 게이츠라는 친구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해서 그 벤처기업에 줬습니다. 자, 30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인텔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IBM보다 훨씬 더 큰 기업 아닙니까. 그게 제대로 된 시장입니다. 대기업이 노력하지 않으면 노력하는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뒤처지고,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 그것이 제대로 된 시장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이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영화사를 보시면 대기업이 영화를 기획, 제작, 투자, 배급하고 영화관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화 상영할 때 영화관에서는 자기 대기업에서 만든 영화를 먼저 걸고, 다른 중소 제작사에서 만든 영화는 명목상으로 새벽이나 한밤중에 상영합니다. 그러면 장사가 잘 안되니까 빨리 종영합니다. 그러다 보니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노력을 하는 중소제작사들이 자리를 제대로 못 잡고, 대기업 영화사들만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구조입니다. 미국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파라마운트사에서 영화제작을 하는데 영화관도 갖고 있었대요. 그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법원에 제소했습니다. 그래서 파라마운트사가 가지고 있는 영화관을 모두 팔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948년의 판결입니다. 미국은 거의 6, 70년대부터 영화제작사는 영화관을 못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제작사들이 끊임없이 경쟁력을 가지고 대박을 쳐서 큰 회사가 됩니다. 그러면 큰 영화사들도 노력합니다. 벤처생태계

와 같죠.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세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소프트웨어를 했으니까 이 분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분야가 많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소프트웨어 분야가 어딘지 아십니까. 엔터프라이즈소프트웨어입니다. 일반인들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대기업이나 그룹에서만 쓰는 소프트웨어입니다. ERP 소프트웨어, 예를 들면 독일의 SAP 같은 곳이 대표적인 회사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지금도 벤처캐피탈들이 투자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엔터프라이즈소프트웨어 시장이 없습니다. 왜냐면 삼성그룹은 삼성 SDS에서 삼성만 쓰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LG는 LG CNS에서 LG만 쓰는 소프트웨어만 만들고, SK는 SK CNC에서 SK만 쓰는 소프트웨어만 만들고, CJ는 CJ 전용 소프트웨어, 코오롱그룹은 코오롱 전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존재하질 않아요. 발상의 전환을 해보죠.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들을 SI 업체라고 하는데요. 만약 몇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대기업이 된다고 가정해보죠. 여기 훌륭한 인력들이 기존의 대기업그룹에 금방 납품할 것 아닙니까. 이 정도 경쟁력이면 금방 수출하면서 고용과 국부를 많이 창출하고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커질 수 있는 분야를 대기업 그룹들이 다 나누어서 자기 그룹 내에서만 사용하고 성장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더 쉬운 예로 호텔이 있습니다. 신라호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 나가 보시면 신라호텔 정도 서비스 수준 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왜 외국의 힐튼 그룹이나 매리엇 그룹·하얏트 그룹처럼 외국의 신라호텔이 없을까요? 조사해보니까 우리나라 30대 대기업 중에서 자체 호텔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 22개입니다. 그러면 다른 그룹의 호텔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룹 내 수요로 만족해서 먹고사는 것으로 그치는 겁니다. 이것도 만약에 몇 개 그룹이 결심해서 호텔만 하는 글로벌 수준의 전문 대기업으로 되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장 안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산업계 구조개혁이 일어나서, 하나의 경쟁력이 있는 그룹이 만들어고,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우리는 성장 가능하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장성장론을 생각하게 된 주요한 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선희 : 굉장히 다양한 예를 가지고 계시는데, 듣는 저희로서는 답답하고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런 구조가 잘 바뀌지 않는지, 여전히 공생의 가치라는 것이 자꾸 폄훼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논하게 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정성장론에 관해서 말씀해주시죠.

안철수 :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많은 예들이 사실 공정한 제도가 제일 기반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공정하고, 분배도 공정하게 일어나고, 조세도 공정하게 일어나도록 제도가 제대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제도가 지켜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도는 있었는데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기반만 생기면 우리는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분배도 제대로 될 수가 있으면서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습니다. 즉 성장의 과실을 많은 사람이 공유하면서 분배가 제대로 됩니다. 또 그렇게 제대로 분배가 되면 건전한 중산층이 많이 나오면서 구매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공정성장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박선희 : 제가 대담을 위해서 며칠간 공부를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공정성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정한 제도가 있어야 가능하다 하는 거

고요. 공정한 제도는 공정한 시장, 시장의 룰이 공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분배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비정규직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 최저임금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정한 분배가 이뤄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정한 조세가 이뤄줘야 한다. 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기반 위에서 혁신성장 과 공정분배, 생산적 복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죠.

안철수 :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는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사실은 성장도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로 들어 말씀드린 것은 산업계의 구조개혁입니다. 그런데 산업계의 구조개혁이라는 게 대기업의 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기업 구조를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처럼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잘하는 글로벌 전문대기업으로 재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독일의 히든 챔피언 아시죠? 일반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세계 1, 2, 3위 정도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튼튼한 기업들입니다. 여기가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을 히든챔피언 수준의 중견기업들로 많이 만들어야 하고요. 벤처기업도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창업기업들 흩어져있는 것이 아니라 창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벤처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한 제도적인 기반 그리고 제대로 감시하는 기능,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선희 : 산업정책 부분이나 북방경제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세요.

안철수 : 그 부분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지를 열심히 찾아봤더니 세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산업정책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기업·중소기업 그리고 창업기업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설명해 드렸고요.

두 번째 부분은 신산업전략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국가에서 신성장동력 이렇게 표현했던 것과 비슷한 개념인데요. 어떤 부분에 접근할 것인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남들을 모방해서 빨리 추격하는 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추격자전략을 펼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더는 추격할 곳이 없습니다. 이미 삼성이나 현대는 1위 그룹에 속하니까요. 그럼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1위에 오른 글로벌 수준의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추격자 전략이 아니라 선도자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의 세계,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대기업에 맡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구개발에 스스로 투자하면서, 이제는 국가의 도움보다 오히려 글로벌 시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놔두는 것이 옳다 그렇게 보는데요.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추격자 전략을 해서 어느 정도 나아간 중소·중견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융합적인 접근이 답이라고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겁니다. 스마트 팩토리 또는 인더스트리 4.0 개념들, 독일에서 이야기하는 그쪽으로 돌입을 하는 거죠. 즉 이제는 로봇이라든지 또는 IOT, 빅데이터들을 활용하는 거죠. 공장에서 굉장히 에러율이 낮고 단가도 굉장히 낮은 제품들을 생산하는 쪽으로 전부 바뀌어야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문화콘텐츠라든지 융합적인 요소들을 도입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기업들은 스스로 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국가에서 도와주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부분에서 추격자 전략을 쓰고 성공을 했지만,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추격자전략이 가능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오 분야나 우주항공 분야 그리고 에너지 분야, 안전분야, 지적서비스분야 이런 5대 분야들은 지금도 추격자 전략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신산업전략 또는 신산업동력 부분으로 지정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성장의 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북방정책입니다. 지금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 또는 더 범위를 넓히면 일본과도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성장할 수 있는 동력들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손정의 회장 아시죠. 제가 안 지는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10년 이상 됐는데요.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이 몇 년 전에 본인이 제일 관심 많은 분야가 글로벌 스마트 그리드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고 하면 스마트그리드는 한 지역이나 한 국가 내에서 전력을 효율적으로 IT 기술로 재배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 중국, 일본의 전력선을 연결해서 스마트 그리드를 제대로 만들 수가 있으면 매우 도움이 될 거라는 게 손정의 회장의 생각이었습니다. 지금은 전력이 항상 수요의 최대 피크를 염두에 두고 거기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게 설계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원자력 발전소부터 해서 매우 많은 발전설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국가들이 스마트그리드로 연결되면 발전소를 한 국가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게 지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력 단가가 낮게 산정되어 있고 일본은 굉장히 높게 산정되어있는데요. 국가 간에 수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간대가 다르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북방경제로 대표되는 건데요. 만약에 러시아에서 가스파이프라인이 북한을 거쳐서 우리 대한민국까지 올 수 있게 하고, 부산항을 기점으로 철도가 연결돼서 중국, 러시아 유럽까지 연결될 수 있는 물류망을 만들고, 전력망이 연결돼서 글로벌 스마트 그리드를 만들

수 있으면 매우 성장 가능성이 큰 경제 분야입니다. 이런 분야들은 외교적인 노력으로 대북 협력을 해야 합니다. 외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저는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박선희 : 혁신성장의 세 가지로 시장구조를 개혁하고 새로 산업정책을 펴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통일과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북방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중요한 혁신성장의 내용이라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코레일에서 시베리아 철도를 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했어요. 7월에 하는데요. 노트를 보니까 목포와 부산에서 출발해 서울에 모여 평양과 신의주를 거쳐서 가야 됩니다. 서울에서부터 북한을 건너뛰고 블라디보스토크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더라고요. 그걸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는데,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혁신성장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공정성장의 다른 두 가지의 축이라고 볼 수 있죠. 혁신성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공정분배와 생산적 복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철수 : 분배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기업은 돈을 버는 주체 아닙니까. 기업에서 번 돈을 세 주체가 나눠 갑니다. 하나는 돈을 번 기업이 가지고, 또 하나는 근로자들이 임금을 통해서 받아가고, 또 하나는 세금을 통해서 국가가 가져갑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나눠었느냐면 IMF 환란이전에 보면, 국가의 경제성장률과 기업소득증가율과 가계 소득 증가율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세수 증가율은 조금 높았습니다. 세 주체가 거의 같이 나눠 가졌습니다. IMF 이후에 통계를 내보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의 절반 정도로 가계 소득증가율, 세수증가율이 보입니다. 대신에 기업소득증가율은 두 배로 됩니다. 그래서 IMF 이전과 이후를

나눌 때, IMF 이전에는 국가와 가계와 기업이 골고루 나눠 가졌는데, 그 이후에는 거의 절반 정도를 기업이 가져가고 나머지를 국가와 가계가 가져가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국가는 계속 세수가 부족하고 일반 사람들은 빚만 늘어나고 소득이 증가하지 않아서 내수까지도 영향을 받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고쳐져야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고쳐지기 위해서는 우선은 분배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분배문제 해결책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 정도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여기서도 공정해야 합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없어야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중소기업에 취직한 인력들이 제대로 월급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1980년대 때 대기업 직원과 중소기업 직원의 월급 차이가 어느 정도 났을 것 같으세요? 90%였습니다. 대기업의 90% 임금을 중소기업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가 되면서 80%가 되고, 지금은 60%입니다. 대기업 직원이 중소기업보다 거의 두 배 받게 됩니다.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여전히 분배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만약에 중소기업이 돈을 많이 벌게 된다고 해요. 그럴 때도 그냥 두면 안 되는 것이, 사장님만 돈 많이 가져가고 직원이 월급을 못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핵심적인 부분이 여기서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비정규직 문제가 중요합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2년인 기간을 4년으로 늘려서 4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같은 일을 하면 무조건 같은 임금을 줘야 된다. 이렇게도 접근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더 좋은 해결책은 다른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사람을 중심으로 봤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회사에 취직해서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라. 그러다 보니까 2년 되기 전에 해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심을 개인으로 두지 말고 업으로 두는 겁니다. 기업 내에서 2년 이상 필요한 일자리에 대해서는 무조건 정규직으로 뽑아야 한다. 그러면 2년 채우기 전에 해고해도 소용이 없죠. 결국은 정규직으로 뽑아야 하니까요. 저는 그것이 제일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봅니다. 그리고 정규직·비정규직의 원래 취지에도 맞습니다. 회사에서 상시로 필요한 일이 아니면 비정규직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기간 필요한 일에 대해서 비정규직을 뽑는 게 맞는 것인데 이것을 상시로 필요한 일에 비정규직을 뽑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면 그런 식으로 해법을 찾으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계소득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자영업자 때문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자영업자를 하면서 스스로 더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면 자영업자 대책은 해결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분배문제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선희 :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성장의 과실을 얼마나 공정하게 배분하느냐 이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생산적 복지 부분을 더 말씀해주시겠어요?

안철수 : 기본적으로 정치권에서 하는 복지논쟁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로 서로 싸우고 있는데요. 저는 잘못된 거라고 봐요. 만약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무한대면 전부 보편복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유한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항상 만나면 내가 쓸게. 만 원 한도 내에서 물 쓰듯이 쓰라고 그

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원칙은 분명합니다. 일단은 세 가지 분야 교육과 보육, 의료에 대해서는 보편복지를 해야 합니다. 교육분야는 보편복지가 기본 아닙니까? 보육도 그렇게 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인구문제가 워낙 심각해서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지. 이것이 그냥 복지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육도 사실은 국가에서 보편복지 수준으로 다뤄야 하고, 그리고 요즘 문제가 많이 되는 의료도 보편복지로 다뤄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선별복지를 꼭 해야 되는 부분은 노인이나 장애인처럼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 최고인데요. OECD 국가 노인 빈곤율은 12.6%이고,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9.6%로 네 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빈곤상태입니다. 노인자살률은 인류역사상 최고인 것 같아요.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도와드리는 것이 복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이외에 꼭 필요한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생산적 복지입니다. 즉 복지혜택이 생산과 성장으로 연결되는 분야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인 약자들인데 그냥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노인 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런 분야가 생산적인 복지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력단절 여성이나 맞벌이 부부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입니다. 그것이 또 생산과 연결이 됩니다. 세 번째 분야는 조기 퇴직한 분들을 국가에서 직업교육을 해서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하는 일들이나, 한번 실패한 기업가가 재도전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분야가 다시 생산과 연결될 수 있는 생산적 복지의 대표적인 분야들이죠.

사회자 : 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정성장론이라는 것이 공정한 시장과 분배 환경을 만들어서 모든 경제

주체가 새로운 자원이나 아이디어를 융합할 기회를 주고, 그것이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실패한 경우에는 재도전할 기회를 주는 사회. 그렇게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되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공정성장론의 핵심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유능한 경제정당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보수진영에서는 공급주도의 성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초이노믹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안철수 : 이전의 이명박 정부가 했던 것이 낙수효과 아닙니까? 대기업 잘되게 하면 그냥 놔둬도 자동으로 중소기업도 잘되고 사람들의 임금도 늘어난다. 그것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이나 초이노믹스도 별다른 바가 없다고 보는데요. 그게 공급주도 성장론의 맹점입니다. 이미 그걸로는 안된다는 게 판명이 났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야당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임금을 상승시키면 구매 여력이 생겨서 물건을 사게 되고 기업들이 수요가 많아지니까 재투자해서 경제가 활성화된다. 그래서 먼저 임금을 올리면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맹점이 뭐가 있느냐면, 기업이 임금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기업을 강제할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기업이 안 올리겠다고 버티면 벌금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수단이 부족하다는 게 조금 부족한 부분인데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나라가 외국과 노동시장이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자영업입니다. 자영업자 숫자의 비율이 OECD 어느 국가와 비교해봐도 비정상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임금주도성장에 해당이 안 됩니다. 자기가 자기 월급 올려봤자 자기 살 깎아 먹이지 않겠습니까. 즉 임금주도성장론은 자영업자 대책이 전무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굉장히 거칠게 표현하면 70% 정도 수출, 30% 정도 내수로 움직이는데요. 임금주도 성장론은 70%를 차지하는 수출에 대한 아무런 정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야당인데, 일부분의 솔루션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고민해서 만든 이 공정성장론은 사실 이론적으로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안연구소 사장하면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회사 중 가장 크게 성장하다 보니까 한국이 가진 산업구조의 문제점에 제일 먼저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얼마나 불공정한지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회사사장으로서는 한 사람 고용 늘리는 결심, 엄청난 겁니다. 한 사람 늘리려면 얼마나 굶은 마음 먹고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소중한 일자리 하나 만드는데 현장에서 한 경험이 저한테는 문제 인식의 출발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이 공정성장론의 해법대로만 하면 한국이 경제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발 이것을 가져가길 바랍니다. 이것 전 부 박근혜 대통령 공이 되도 됩니다. 우리가 위기 탈출하는 것이 중요하지 누가 저작권 주장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절박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6. 지역균형발전 - 광주광역시 중심으로

“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다른 분야 투자는 잊어버리고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선희 : 정치인이 경제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도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여기 광주에 오셨으니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지역 균형발전이라 볼 수 있는데요. 광주와 관련해서 공정성장론과 지역균형발전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철수 : 우선은 크게 세 가지 원칙 정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원이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다할 수 없습니다. 지역마다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전부 다하다 보면 이뤄질 수 없습니다. 영화 300 보셨어요? 스파르타인 300명이 페르시아 대군 30만 명하고 붙습니다. 1,000명 대 1명입니다. 만약에 벌판에서 싸웠으면 그 300명 금방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썼던 방법이 협곡에서 싸웠습니다. 그러면 저 쪽이 30만 명이라도 싸울 수가 없죠. 그래서 300명과 거의 1:1로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300명이 30만 명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적을 때는 전선을 좁혀



야 해요. 하고 싶은 게 여러 분야가 있는데 다 흩어져서 1000:1로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한 가지 분야, 아무리 많아도 세 가지 분야 정도를 넘으면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광주는 세 가지 분야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자원을 활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요즘 사물인터넷 잘 나간다는데 우리 그것 해볼까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다른 도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영어표현으로는 SUNK COST라고 있습니다.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기업가와 실패하는 기업가를 많이 봤습니다. 차이점이 하나입니다. 무엇이나면 성공하는 기업가는 어떤 분야에 돈을 10억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판단을 하는 거죠. 내가 이미 투자한 돈은 새로 다시 꺼낼 수는 없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느 분야에 내가 투자를 하면 성공확률이 제일 높은가만 봅니다. 예전에 기투자한 비용에 대해서는 잊어버립니다. 그게 매몰 비용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실패하는 기업가들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10억을 투자했어요. 1억만 투자하면 앞에 10억까지 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 투자하고 투자하다 망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업에서는 이런 매몰 비용 개념을 가지고 하는 기업가들이 성공합니다. 그런데 행정이나 정치에서는 그런 일들이 잘 발생하지 않는 게, 책임소재가 있거든요. 예전에 투자한 것들 책임 안 지려고 더 투자하고 투자하고 하면서 그 비용까지 전부 다 쓸데없이 쓰레기통에 버리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광주는 여러 가지 분야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세 가지 분야 이상입니다. 어쩌면 10가지 분야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일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지금까지 투자했던 비용들 잊어버리고, 현재 어느

세 가지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옳은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나눠보니까 결국은 세 가지 분야. 우선은 자동차 사업분야. 이미 기아라는 공장이 있고 여기 지스트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자동차 분야에 대한 집중된 투자. 그다음 문화콘텐츠가 있지 않습니까? 마침 나주에 콘텐츠 진흥원이 왔습니다. 광주는 아니지만 가까이 있으니까 그곳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경쟁력이 있는 문화콘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는 관광이죠. 이걸 다 연결이 됩니다. 문화콘텐츠가 있으면 관광에 도움이 되고, KTX나 지금 곧 있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분야에 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다른 분야 투자는 잊어버리고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선희 :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지금 광주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기도 하니까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고 조언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5·18 이후로 처음으로 광주에 오셨거든요. 한 달 만에 오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자주 오셔서 지역균형발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뒤에 질문지가 있는데요. 적어주시면 지금은 시간관계상 어렵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정책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겁니다. 안철수 의원의 키워드가 복지·정의·평화·지속가능성 이런 건데요. 작년 12월 경제해법 찾기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안 의원님 전 일생에 걸쳐서 계속 고민했었던 키워드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결국 정책으로 입안되고 국민의 삶인 현장 속으로 들어가고, 모두가 공정성장의 과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좌담회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안철수 국회의원 초청 특별강연 및 좌담회 개최

일시 2015. 6. 17(수) 14:00

장소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대학 C동 104호





공정성장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1판 1쇄 펴냄 2015년 6월 26일

기획 김태형

편집 김우곤

사진 방영문

펴낸곳 국회의원 안철수의원실

전자우편 ahnsc.kr@gmail.com

트위터 @ahnsc111

© 안철수의원실, 2015

이 책의 내용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안철수의원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